✶부평✶ 지하던전Ⅱ

부평 로컬 팝업스토어 NEWS LETTER

VOL. 4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2024. 12. DEC

서울 핫 플레이스 한복판에서 즐기는 부평 어드벤처

글. 일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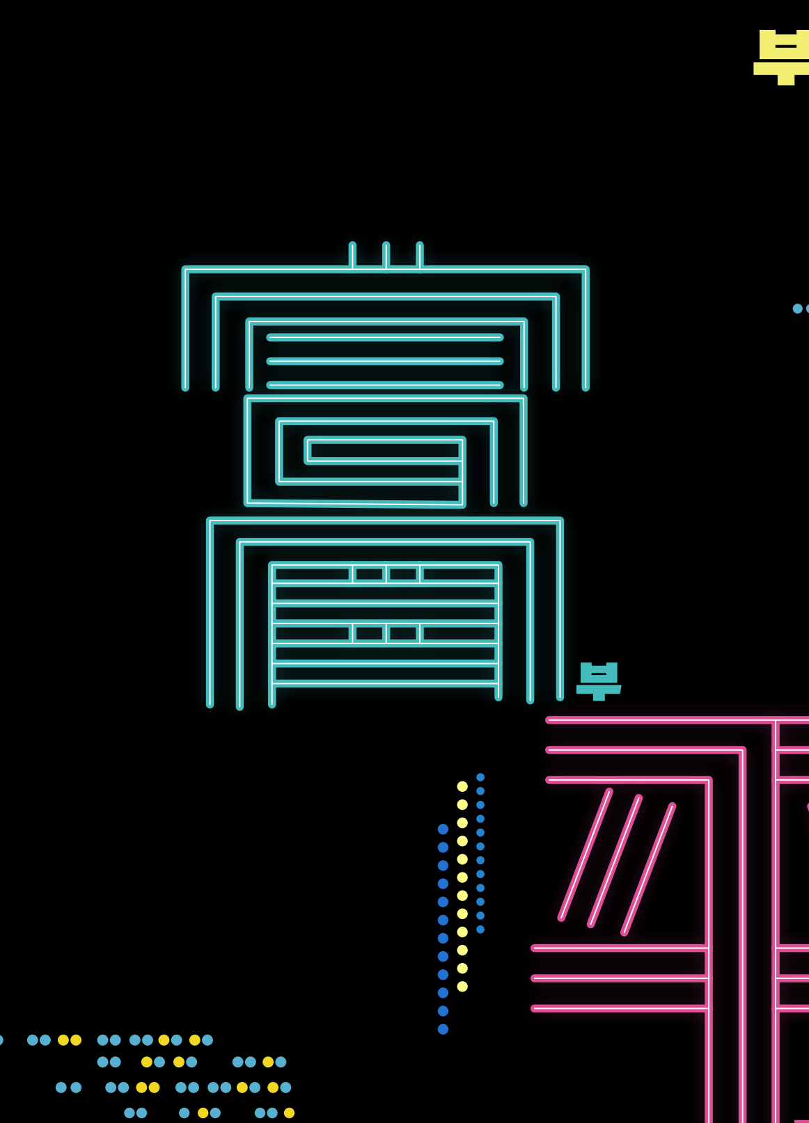
'부평을 아는가'라고 타지 사람에게 물었을 때, '아, 부평역?'하고 이어지는 말들을 살펴보자. '환승역 인파, 무한 쇼핑이 가능한 거대 지하상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골목들, 멀티플렉스와 프랜차이즈...' 요약하자면 이렇다. '놀 수 있는 곳.' 노는 것처럼 모두가 좋아하는 것도 없겠지만, 논다는 말에는 은근슬쩍 불량하다는 뉘앙스가 스며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부평은 인천의 주요 번화가 중 하나다. 항구 도시라면 으레 따라붙는, 인천에 대한 다소 무서운(?) 편견도 그 뉘앙스에 한몫한다. 마계 인천과 부평 던전 같은 짓궂은 별명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왔을 터, 이유야 무엇이든 적어도 타지 사람들에게 부평의 이미지는 다소 강렬한 듯하다.

부평 지하상가를 활용한 '지하던전'

서울 한복판에서 바로 이런 부평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노는'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서울 연남동 복합문화공간 스몰타운스몰에서 열린 부평 로컬 팝업스토어는 부평 지하상가를 활용한 '지하던전'을 주제로 했다.

지역 밈을 적극 활용한 이 팝업스토어는 난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오히려 유머와 귀여움으로 승화시킨다. 팝업 공간은 방문객이 직접 퀘스트를 해결하는 던전 체험 공간과 인천과 부평의 브랜드 및 굿즈를 만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부평에 대한 편견을 통해 오히려 편견을 깨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부평 지하던전 탐험기



본래 던전이란 모험가를 위한 곳인 법. 고로 부평지하던전의 방문객은 모두 모험가가 된다. 모험의 목표는 편견이라는 어둠이 드리워진 부평지하던전을 탐험하여, 부유(富)하고 평화(平)로운 진정한 부평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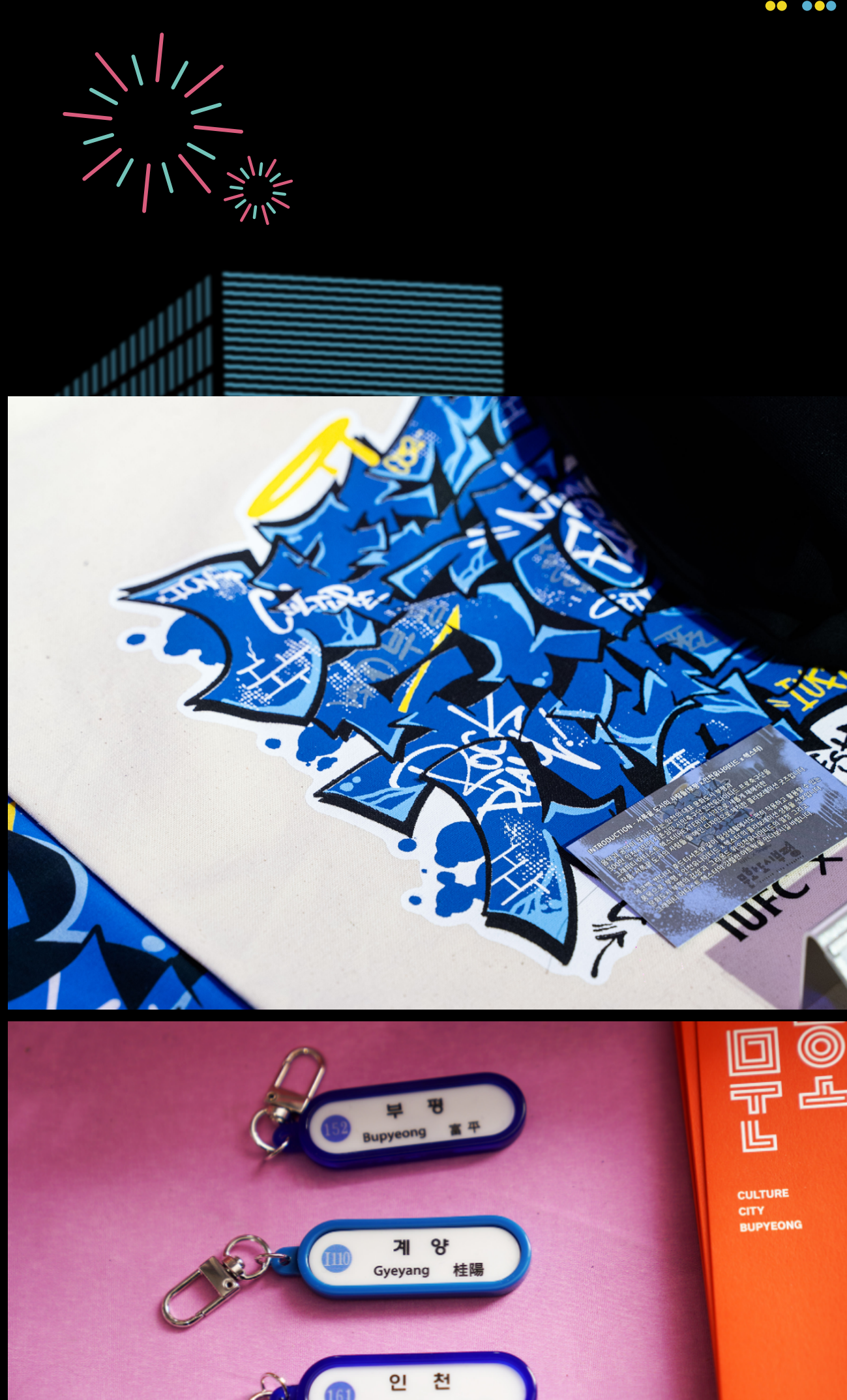
던전 탐험은 부평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는 4가지의 퀘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는 어둡고 미로 같은 던전을 지나며 퀘스트를 해결한다. 던전을 무사히 통과한 참여자는 부평을 구한 용사가 되어, 밝고 평화로운 전시 공간에서 마음껏 다채로운 부평을 접할 수 있다.

직접 가본 부평 팝업스토어는 던전이라는 컨셉에 걸맞게 입구에서부터 네온과 그래피티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다. 운영진들 또한 망토와 뿔 머리띠 등 무시무시하게 귀여운 마계 복장을 하고 열렬히 참여자를 안내했다. 모험가로서 흡족할 만한 환대라 정신없이 따르다 보니 어느새 던전 입구. 진입하자마자 마주치는 어두운 미로와 느껴지는 몬스터(?)의 기척에 흠칫 놀라게 되지만, 에너지 넘치는 안내자 NPC의 등장으로 곧 미션에 집중하게 된다. 본디 부유하고 평화로운 고장 부평,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리라! 왜인지 장엄한 태도로 맞닥뜨리게 되는 몬스터들은 역시나 험악하면서도 귀엽다. 화려한 응원에 힘입어 모든 게임을 한 큐에-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퀘스트도 있어 다소 버벅이며- 끝내면 어느새 던전의 끝이다. 그곳에는 이미 선배 용사들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그냥 지나칠 순 없지. 하나 적어 놓았다. '부평보다 평화로운 곳은 없어.'

BUPYEONG
RICH&PEACE
CITY
spectacle
ONESTEP RECYCLE

임무를 완수한 용사는 열렬한 축하 속에서 진짜 부평을 만난다. 던전 밖의 전시 공간은 부평을 뜻하는 한자를 따라 리치 존(zone)과 피스 존(peace zone)으로 꾸며졌다. 리치존에는 기념 스티커 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 있는 던전두컷이 있고, 피스존에는 인천과 부평의 로컬 상품들과 굿즈들이 진열되었다. 특히 이번 팝업을 기념하는 협업 상품들이 인상적이다. 인천을 대표하는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FC'는 인천 그래피티 작가 '헥스터'와 콜라보하여 응원가 '인천 사람들' 중 '서쪽 끝 도시의 사람들'을 메인 디자인으로 제작한 에코백, 맨투맨, 반다나 굿즈를 출시했다. 소성주로 유명한 부평 로컬 막걸리 양조장 '인천 탁주'는 '쌀은 원래 달다'의 리뉴얼된 디자인에 부평의 대표 문화관광콘텐츠인 풍물을 결합시킨 새로운 패키지 박스를 선보였다. 인천인이라면, 부평인이라면 더욱 반가울 만한 디테일을 잡아낸 굿즈도 있다. '원스텝리사이클'이 기획한 업사이클링 키링 "MEET ME at the BUNSUDAE"(분수대에서 만나). 부평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일명 국룰의 약속 장소, '물 없는 분수대'를 소재로 했다. 이외에도 인천러임을 인증하면 받을 수 있는 인천 지하철역 키링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팝업스토어에 풍성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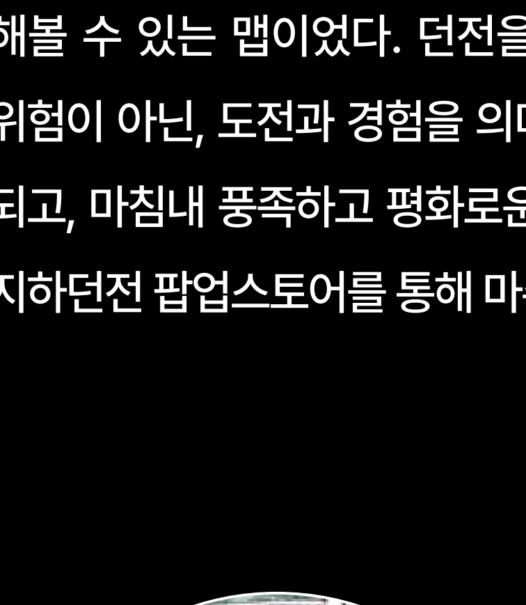
WE ♥ BUPYEONG
spectacle



인천 로컬 팝업스토어 '부평지하던전'은 연남동 스몰타운스몰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부평 평리단길에 위치한 '더즌매터'에서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되었다. 부평인으로서 익숙한 부평을 다시 보는 체험도 로컬 팝업스토어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함이다.

부평 지하던전Ⅱ
부평 로컬 팝업스토어
2024. 11. 15 (금) - 11. 24 (일)

인천에서 태어나 부평에서 10대를 보낸 사람으로서, 이번 팝업스토어는 내게 부평 지하상가가 어떤 곳이었던가 떠올리는 계기가 됐다. 아이돌 잡지와 신간 만화를 구경할 수 있는 대형 서점, 사춘기 자아 표출에 큰 역할을 했던 다채로운 의류 점포들, 설레며 조조할인 영화를 보러 가는 길과 빵이 리필 되는 과일빙수 가게 등 이제 막 놀이터를 벗어나 마을버스를 타고 나갈 수 있게 된 북인천의 어린 모험가에게 부평 지하상가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맵이었다. 던전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 경험치를 쌓는다는 것 아닐까? 어쩌면 부평의 던전은 위험이 아닌, 도전과 경험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편견의 전환이다. 모험가는 던전에서의 모험을 통해 용사가 되고, 마침내 풍족하고 평화로운 장소에 도달한다. 던전이라는 모험과 부평(富平)이라는 이상향이 공존하는 곳, 지하던전 팝업스토어를 통해 마주하게 된 진짜 부평이다.



일공일

withoat@gmail.com

인천에서 나고 자랐다.
제주와 광주에서 지역문화 기반 창작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현재는 인천으로 돌아와 글을 쓴다.

✶부평✶ 지하던전Ⅱ
부평 로컬 팝업스토어
FREEDOM
인천 유나이티드 INCHEON UNITED F.C.
ONESTEP RECYCLE
DOZEN MARKER
spectacle
zagne
zagne
zagne
32 부평대로 28
Bupyeong-daero
1 인천1
부평역
Bupyeong Station 富平驛
인천 탁주

부평(富平)

부유하다는 의미를 가진 富와
평화롭다는 의미를 가진 平을
지명의 뜻으로 품고 있는 도시, 부평

부평지하상가를 타고 펼쳐지는 쇼핑의 다채로움, '리치 (Rich)'
굴포천을 타고 흐르는 생태의 평화로움, '피스 (Peace)'
캠프마켓, 공장, 주거 단지 등 한국 근현대사를 압축한 도시의 풍경, '시티 (City)'

부평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과 색깔을
로컬 브랜드 & 아티스트와 함께 팝업스토어에 담습니다.

부평지하던전 더 알아보기